

현대 우리 사회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며,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비약적 발전으로 IT 산업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산업화의 흐름 저편에는 문화적 해력과 수용에 대한 지역적 격차와 세대간 격차, 왜곡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사교의 팽배, 상업주의와 향락문화의 확산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가족보다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후기 물질주의 가치가 확산되면서 자녀의 가치 역시 변화해서 '자녀'가 주었던 경제적 혜택이나 대를 잇는 존재로서 부모에게 주었던 심리적인 만족감이 줄어들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 1명당 3명까지 드는 교육비가 전국 평균이 약 6200만원이며, 대도시는 교육비가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시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자녀양육을 포기하거나 재혼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자녀양육 책임을 지지 않아서 엄연히 부모가 있는 아이가 사고자가 되기도 하고 자녀를 학대하는 등 어지러지는 가족이 와 해되고 사회가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나라 전체 아동 가운데 방임 아동에 대한



불자 세상보기

고 성 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방치된 아이들, 누구책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동학대에방센터에 신고된 아동학대사례를 보면 2001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아동방임은 전체 학대사례 가운데 약 3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집계된 아동학대 관련 사망 아동 25명 가운데 9명이 방임으로 사망했다.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적 방임은 심각한 발달상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특히 2세 이하 유아들이 방임되면 성장실패 증후군 등과 같은 회복이 불가능한 발달상태를 보일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방임은 화재나 각종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위

협에 아동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학대 유형이다. 주위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일부 아이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동네 형들과 어울리다가 비행을 학습하게 되고, 자신을 돌봐주는 행들의 행동을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고 좋아해주는 형으로 기억하면서 그들과 어울리게 되고, 때로는 홀로 게임에 빠져서 컴퓨터 중독이 되기도 한다.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현대 사회에서 치명적인 것은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인력난이 생기고 사회적 부담 부담이 커져 전체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아동의 방임과 유기는 한 개인의 삶이나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확대된다.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과 생존을 위한 경제의 논리에 뒤처져 부모로부터 방치되는 아동은 다 미래의 소중한 자이다. 비참한 아이들의 현실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와 어머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지금은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참신한 미래사회의 꿈나무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국민적인 뜻을 모을 때이다. 돌봄의 사회, 배려의 사회로 가는 성숙한 사회이기를 바란다.

물론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시설이 많이 증가했지만, 시설이 다양화되어야 하고, 유연한 시간 운영,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의 보육비용, 믿고 맡길 만한 보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져야 하며, 아동보육 지원정책 대상이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생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곁에서 돌봐주는 사람 없이 아이들끼리만 살도록 하는 소년소녀가장제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동방임을 승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아이들에게 가정의 집을 지우는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그를 홀이나 가정위탁, 입양 등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되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불자의 눈

'왜 바꾸려 했는가?' 가 의심스럽다. 또 그렇게 큰 파문을 일으키고도 남독할만한 설명이나 사과도 없이 끝났다. 바로 총남대의 '정심화 국제문화포럼' 개명 파문도 그렇다. 정말로 왜 바꾸려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정심화'라는 기증자의 이름이 붙어있으면 국제문화를 지향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수많은 다른 건물들에 기증자 내지 기여자의 이름이 번듯하게 유지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개명을 추진했던 타당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 추진 이유가 꼭 총장이 기독교의 집사이기 때문이라는 증거도 없고, 그렇게 의심하고 몰아가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아래서는 관을 고쳐 쓰지 않고,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총장이 기독교인이라면 더욱더 솔직한 구설수에 자신의 종교가 모독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옳은 일이다.

왜 법명 쓰면 안되나?

송고한 뜻을 가졌던 정심화 보살의 유지가 꺾이는데 대한 대학생과 지역사회의 공분이 일면서 회관 개명은 결국 없던 일로 하였고에 한련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 또한 아니다.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켰던 것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책임의 소재에 대한 규명과 조처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 것 없이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은 결코 올바른 마무리가 아니다. 되레 아주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는 것일 뿐이다. 무책임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여론의 비난이 집중되면 적당하게 호도하고 넘어가려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확실한 해명과 더불어 책임소재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있어야 마땅하다.

한편, 불교계가 이번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잘못을 바로 잡는데 힘을 보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불어 차분하게 불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지키고 실현한다는 차원으로 인식을 확산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결을 더 나아가 보다 큰 정의실현을 위해 대승적으로 행동하는 성숙된 불교된 모습도 견지해야 할 것이다.

■ 성대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말의 공덕
추한 말을 멀리 여의라. 추한 말은 자기에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히므로 피차가 다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착한 말을 뒤어 익히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우니 피차가 다 이로운 것이다. <무량수경>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최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감정 표현 단어 434개 중 72%가 불쾌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서울대 심리학과 민경환 교수팀이 '한국어 감정단어'를 연구해 <한국심리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보면, 사랑·행복·기쁨처럼 '쾌(快)'를 표현하는 말은 전체의 30%도 채 안 되는 반면 '불쾌'를 나타내는 단어는 70%가 넘는다고 한다.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벨린타인데이에 유감
14일 벨린타인데이, 3월 14일 화이트 데이. 유지원생부터 어른들까지 이날만 되면 초콜릿이나 사랑을 선물하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됐다. 중학교를 다니는 딸아이 역시 며칠 전 같은 반 남자친구들에게 줄 초콜릿을 사야한다며 용돈을 달라고 했다. 여러 말 쓰기보다 또래의 문화라니 하고 이해했다. 초콜릿 업자들의 상승에 의한 가짜 명절이라니 논란도 많았지만 이런 일상적인 문화로 받아들여진 느낌이다. 결국 서양 종교 성인들의 기념일이 영문도 모른 채 한국인들의 생활문화로 뿌리를 내린 것이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댓글 예절 지키자
늦은 나이지만 인터넷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붓다뉴스로 기사 읽는 재미도 알게 됐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독자들이 달아놓는 주장들이 때로는 감정에 치우쳐 논리적인 토론을 벗어나고 있고, 인식 공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2006학년도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수강생 모집
명상(冥想) 기(氣)치유사 수련생 모집
인간 심신의 안정을 통해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고도의 "마음치유법" 자연치유 능력 활성을 돕는 놀라운 건강법 소개
접수기간 : 2006년 2월 1일부터 ~ 3월 8일 / 개강일시 : 2006년 3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교육기간 : 2학기 과정
강의시간 : 수요일 오후 2시 - 4시 50분
담당교수 : 박 세준
교수약력 :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기학전공) 박사 · 포천중문의과대학 보건대학원 외래교수
학기당 학습비 : 800,000원
교육목표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병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으나 본 교육과정에서는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소우주로 보고 이를 우주의 변화현상 속에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 즉 인간의 심신의 안정을 통해 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 선천적·후천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고도의 "마음치유법"을 통하여 기치유(氣治癒)(healing)되는 기능성장애, 통증제어, 각종 증상을 치유 개선할 수 있는 자연치유 능력 활성을 돕는 놀라운 건강법에 대해 교육 할 것이다.
강의내용
1. 명상(冥想)이란 무엇인가?
2. 명상치유(명적 프로그램)
3. 심리치유(심리적이완, 치유 에너지 증폭)
4. 심리요법(내적 심리 프로그램)사이먼튼양요법+활성법
5. 신체적 운동과 기치유 동공
6. 명상의 실천수행 1 - 사념처관(위빠사나)사건발정법
7. 명상의 실천수행 2 - 기공수련의 응용(병원실습)
8. 명상의 실천수행 3 - 기공수련의 응용(병원실습)
9. 명상치유 1 - 업력과 유전자의 관조
10. 명상치유 2 - 자기긍정을 통한 무의 세계
11. 명상치유 3 - 건강상태와 건강의식 내시(오장육부)
12. 명상치유 4 - 자기 자의적 명상 치유법 전개
13. 사선팔정(四禪八定) 석가기공(釋迦功)
14. 총괄평가
15. 명상심리경역에 한하여(1년~3년)시행자가 주어지므로 실습주주의 교육, 보건복지부-정신보건임상심리사, 산업인력공단-임상심리사... 2급개설, 병무청-2008년부터 임상심리사배치 신체검사서 인정검사 주요강화.이 외에도 가정폭력상담사, 경찰수사, 성폭력, 청소년비행, 약물오용, 미혼모 등 상담사로서 역할이 다양해 지고 있다.
현공(玄空) 기(氣)풍수 인테리어 풍수사 과정 모집
공간은 무한한 시간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한량없는 기(氣)의 바다이다. 인간이 대 우주안의 지구라는 공간에서 자연과의 호흡은 생명의 원천이다. 그러나 인간은 인공적인 것을 자연적으로 가장 효과있게 응용하는 것이 풍수인테리어 일 것이다. 사람이 가장 많이 머무는 것이 잠자는곳 집일것이며,집은 정(靜)적인 영역이요 직장(사무실 상가 일터)은 동(動)적인 영역이다.이런곳은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인공적 환경조건이다. 인간은 그영역에 있다.그러므로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응용 발전시켜 공간의 배치, 개념의 제시, 이미지선정, 구조선택, 실례의 소개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의 조화, 성취방법등의 환경개운학(環境開運學)이 즉 현공(玄空) 기(氣)풍수 인테리어이다.
1주: 공개 강좌 - 풍수와 기(氣)
2주: 풍수 인테리어 구성요소
3주: 기(氣)풍수 가구배치법
4주: 집의 형태와 구조
5주: 용의 지맥과 터잡기
6주: 인테리어 조경풍수법
7주: 대지 지적상 가족 배치
8주: 도시풍수
9주: 아파트 풍수
10주: 팔괘와 응용 풍수 인테리어
11주: 풍수 인테리어 기본원리
12주: 팔괘와 구성법과 인테리어 응용
13주: 인간과 마음의 조결풍수
14주: 기(氣)의 개발 (발기법)
15주: 인테리어 풍수 운영예측
16주: 풍수인테리어 심리효과 개발 및 치유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http:dgucc.dongguk.edu → 관련기관 → 사회교육원 → 특별교육과정 → 명상기치유사과정,또는 한글로 동국대사회교육원으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국대사회교육원 행정지원실 : 전화 0212260-3728~9